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H리그 첫 승리 ‘정조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올 시즌 첫 승리를 노린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16일 오후 7시 광명시 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2차전에서 대구시청을 상대한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일 ‘다펜딩 챔피언’ SK슈가글라 이터즈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24-32로 패배했다. 이날은 실책이 승패를 갈랐다.

SK는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쥔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승부처에서 연이은 실수가 나오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강주빈은 5골 5도움(공격성공률 83.3%), 연지현은 4골·4도움(공격성공률 66.7%), 김지현도 4골·4도움(공격성공률 44.4%)을 올리면서 득점을 책임졌다.

골키퍼 이민지 역시 11세이프(방어율 28.2%)로 클러치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 했지만,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한 광주도시공사는 인천·대구와 나란히 승점 0점을 기록, 득실차로 리그 7위에 위치했다.

올 시즌 개막에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선수단의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다.

주 전력인 송해수·이아현은 부상으로 은퇴했고, 김수민도 이탈했다. 이어 박지호·조연서가 계약만료 되는 등 큰 공백이 생겼다.

이에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베테랑 이효진, 최수지, 함지선, 강주빈 등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여기에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윤별과 박소망(이상 조대여고), 최연아(정읍여고) 등 3명의 선수들을 지명하며 신구조화를 꾀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백업 선수까지 보강된 상황. 문제는 조직력이다. 새로운 선수들로 물갈이되다 보니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SK와의 개막전 경기에서는 실책만 12개를 범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또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을 선보인 이민지의 활약도 주목된다. 오세일 감독은 올 시즌 개막전 킥플레이어로 이민지를 꼽았다.

방어율 35% 이상이 나와야 팀 성적이 나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복이 있는 이민지가 앞으로 흔들림 없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할 팀은 대구시청이다. 대구시청은 올 시즌 여자부 8개 구단 중 유일하게 전력 대부분을 유지한 팀이다.

단단한 팀워크를 통해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 이번 시즌에 나섰다.

개막전에서 삼척시청의 속공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당했다.

정지인(5골)의 중거리 포와 노희경(5골)의 저돌적인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지만, 골대에 맞는 등 숫 미스가 잦았다.

다만 숫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김희진과 김예진이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갖추게 된다. 광주도시공사의 입장에선 단단한 수비가 필요하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감독은 “대구는 올 시즌 멤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부분 새로 영입한 구단과는 다르게 팀워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면서도 “지난해 대구한테 한 번을 지고 두 번을 이겼다.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 일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첫 경기에서는 팀의 미스가 많았다. 선수들이 많이 바뀐 만큼 적응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좋은 백업들도 많은 만큼, 지난 시즌보다는 경기 운영이 훨씬 수월하다. 1라운드에서 스타트를 잘해야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 시청전을 기점으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정관장 상대 시즌 첫 승…3연패 탈출

3-0으로 제압…올해 첫 셋아웃 승

조이 27득점…박은서·하혜진 활약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정관장을 꺾고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AI페퍼스는 13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8 25-21 25-16)으로 승리했다. 앞선 3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했던 AI페퍼스는 올해 첫 셋아웃 승리로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올 시즌 정관장을 상대로 한 첫 승리이기도 하다.

그 결과 8승 14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6위 자리를 유지. 최하위 정관장(승점 18)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번 경기에서 AI페퍼스는 외인 조이가 양팀 최다 27득점(공격성공률 63.89%)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박은서는 9득점(공격성공률 42.86%), 하혜진은 6득점(공격성공률 50%)을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장소연 감독은 이날 박정아·박은서(아우스사이드 히터), 조이(아포짓 스파이크), 하혜진·시마무라(미들블로커), 이원정(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 초반 AI페퍼스는 조이와 시마무라의 공격을 앞세워 빠르게 치고 나갔다. 상대는 박은진과 정호영의 속공, 이선우의 오픈 등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듯했으나 범실을 쏟아내며 크게 흔들렸다. 결국 24-18에서 박은서의 쿼오펜이 적중하며 1세트가 끝이 났다.

2세트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15-15까지 시소 게임이 이어진 상황. AI페퍼스가 박은서의 오픈을 시작으로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격차를 벌렸다. 이후 24-21에서 시마무라가 이동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2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3세트는 역시 양상은 비슷했다. 9-8로 앞서 가던 AI페퍼스는 하혜진과 조이를 앞세워 리드를 유지했다. 상대는 또다시 연이은 범실을 기록, 추격에 실패하면서 AI페퍼스가 승리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3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8 25-21 25-16)으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광주FC, 2026시즌 제주SKFC와 개막전 치른다

3월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첫 경기…12개팀 참가 팀당 33경기 소화

프로축구 광주FC가 새 시즌 첫 경기에서 제주 SKFC와 맞붙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2026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1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의 일정을 발표했다.

다펜딩 챔피언 전북부터 승격팀 인천·부천 등 총 12개 팀이 참가하는 K리그1은 2월 28일 개막전이 열린다.

올 시즌 K리그1의 포문을 여는 경기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다. 인천은 강등 1년 만에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K리그1 무대로 돌아왔고, 서울은 후이즈와 구성원 등 알짜 영입을 앞세워 우승권 도약에 도전한다.

같은 시각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는 울산과 강원도의 경기가 열린다. 울산은 ‘원클럽맨’ 출신의 신임 사령탑 김현석 감독과 함께 반동을 노리고, 강원은 정경호 감독의 지휘 아래 지난 시즌 돌풍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김천중합운동장에서는

K리그1 정규라운드 경기 일정

경기	날짜	시간	장소
인천 vs 서울	2.28(토)	14:00	인천축구전용
울산 vs 강원	2.28(토)	14:00	울산문수
김천 vs 포항	2.28(토)	16:30	김천종합
전북 vs 부천	3.01(월)	14:00	전주월드컵
제주 vs 광주	3.01(월)	16:30	제주월드컵
대전 vs 안양	3.02(월)	14:00	대전월드컵

김천과 포항이 만난다. 두 시즌 연속 3위에 오르며 저력을 입증한 김천은 신임 주승진 감독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네 시즌 연속 파이널A 진출에 성공한 포항은 박태하 감독의 안정적인 지휘 아래 더 높은 순위를 노린다.

3월 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지난 해 K리그1과 코리아컵을 모두 제패한 전북과 승격팀 부천이 만난다. 전북은 신임 정정용 감독과 함께 올해도 우승에 도전하고, 부천은 구단 최초 승격을 이끈 이영민 감독과 K리그1에서 당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광주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를 상대한다. 양 팀은 올 시즌 나란히 신임 사령탑을 선임했다. 제주는 세트지우 코스타 감독과 함께 ‘주도하고 압도하는 축구’를 선언했고, 광주 이정규 감독은 ‘소유와 압박’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와 광주의 경기는 주도권을 중시하는 두 팀의 철학과 신임 사령관들의 지략 대결이 맞물린 경기로 관심을 모은다.

3월 2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는 대전과 안양이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대전은 임원상·루빅손·조성권 등을 영입해 정상 도전에 나서고, K리그1 승격 첫 해 저력을 보여준 안양은 올 시즌에도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2026시즌 K리그1 일정은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ACLE, ACL2) 참가팀 일정에 따라 조정 및 순연될 수 있다.

이 밖에도 K리그1 정규라운드 33라운드를 마친 후에는 파이널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파이널라운드는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각 팀별로 5경기씩 치르게 되며, 해당 경기 일정은 정규라운드를 모두 치른 후에 공개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탁구 신유빈, 종합선수권 혼복 첫 우승 도전

실업팀 입단 후 종합선수권 처음 출전…임종훈과 혼복 호흡

작년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 왕중왕전에서 혼합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대한항공·사진)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9회 전국 남녀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대한탁구협회 종합선수권 대진 편성 결과에 따르면 신유빈과 임종훈(한국거래소) 콤비는 혼합복식에서 본선 2번 시드를 받아 16강부터 시작한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1회전(16강)에서 승리하면 본선에 직행한 오승환-김성진(이상 삼성생명) 조와 8강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대회 챔피언인 조승민-김성진(이상 삼성생명) 조가 톱시드를 받았고, 박규현(미래에셋증권)-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 조, 조대성-양하은(이상 화성도시공사) 조, 이다은-박강현(이상 미래에셋증권) 조도 16강에 직행했다.

신유빈이 종합선수권에 나서는 건 지난 2020년 실업 무대 데뷔 후 처음이다.

신유빈은 수원 청명중에서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실업팀 대한항공에 입단한 뒤 국제대회와 겹치는 일정 등 여러 이유로 종합선수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단식에는 출전하지 않고 혼합복식과 단체전에만 나선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2024년 파리 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한 ‘황금 콤비’다.

국제탁구연맹(ITTF)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

콤비인 신-임 조는 작년 12월 WTT 파이널스 홍콩 준결승에서 세계 1위 듀오인 린스동-콰이만 조를 3-1, 결승에서 세계 3위 왕추천-쑨잉사(이상 중국) 조를 3-0으로 차례로 꺾고 우승했다.

신-임 조는 처음 출전한 이번 종합선수권 첫 우승으로 세계 2위 듀오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각오다.

연합뉴스